JP 외교활동사外交活動史 4부–유럽 국가편

"JP는 역사다"
역사를 논할 수 있음은 구체적으로 연구와 서술을 통해서 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직접 우리들이 지각知覺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사료史料를 매개로 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면 JP를 왜 역사로 표현하는가? 2015년 발간된 화보집에 이어 2016년 '김종필증언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운정의 지나온 50년 정치 발자취는 모든 것이 사료에 근거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정재단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의해 설립된 것도 JP와 관련된 사료들을 총합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운정재단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각종 사료들을 지면을 통해 체계화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진 사료들을 중심으로 수집,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매번 주제를 달리하여 각종 아카이브들을 공개하여 관련된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운정의 여러 분야의 공업功業 중에서도 민족중흥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가장 오랫동안 매진하고,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은 분야는 후진국의 낙후된 국력을 쇄신하고 민족중흥과 근대화를 위한 외교활동이었습니다.

JP 외교활동사 시리즈로 지난 2016년 가을호에 1부–미국, 겨울호에 2부–일본, 2017년 봄호에 3부–아시아 국가편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2017년 여름호에는 4부로 유럽 국가들을 게재합니다.
운정은 혁명 초기 1961년부터 중앙정보부장으로 일본과 동남아, 미국 등을 방문하여 5.16혁명, 제3공화국의 정통성과 근대화 사업에 초석을 쌓은데 이어, 1963년에는 자의반 타의반 1차 외유로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공식, 비공식으로 여행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과 경제협력 관계를 개척하여 왔습니다. 운정은 "주로 혁명한 나라, 가난하게 살다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나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 이번 여행하는 목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특사, 국회의원, 두 번의 국무총리 자격으로 총 아홉 번에 걸쳐 유럽 10여개의 국가를 방문하여 각 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한편 각 국의 경제계와 주요 산업시설, 사회기반 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을 시찰하며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의 근대화, 선진화, 세계화의 활로를 열어 가는데 기여했습니다.
유럽 10여개 국가의 정상들과 지도자를 상대해 온 역사적 장면들을 나라별로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유럽Europe 또는 구주歐洲, 구라파歐羅巴는 대륙 중 하나로, 우랄 산맥과 코카서스 산맥, 우랄 강, 카스피 해, 흑해와 에게 해의 물길을 분수령으로 하여 아시아와 구분한 지역을 일컫는다. 북쪽으로는 북극해, 서쪽으로는 대서양, 남쪽으로는 지중해, 동남쪽으로는 흑해와 그와

❶ 영국 ❷ 프랑스 ❸ 독일 ❹ 이탈리아 ❺ 모나코 ❻ 폴란드 ❼ 포르투갈 ❽ 스페인 ❾ 벨기에 ❿ 네덜란드 ⓫ 노르웨이
⓬ 덴마크 ⓭ 그리스 ⓮ 헝가리 ⓯ 아일랜드 ⓰ 슬로바키아 ⓱ 리투아니아 ⓲ 러시아 ⓳ 스웨덴 ⓴ 스위스

비롯한 물길과 마주한다.

유럽 면적은 10,180,000 km² 로서 지구 표면의 2퍼센트, 육지의 약 6.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과 인구로서 러시아가 가장 크고, 바티칸 시티가 가장 작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11퍼센트 7억 3천 9백만 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으로 많다.

유럽은 서구 문화의 기원이며,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비롯하고 있다. 15세기 이후로 부터 세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펼쳤으며, 식민주의를 시작하였다. 16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였다.

유럽을 지리적 위치·정치·인종·문화적 지표에 의해 다시 나누면 서부 유럽(영국·프랑스·베넬룩스 3국), 북부 유럽(아이슬란드·스칸디나비아 3국), 중부 유럽(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남부 유럽(지중해 연안 국가), 동부 유럽(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폴란드·유고슬라비아·체코·불가리아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운정이 만난 유럽의 정상

프랑스는 1963년부터 1999년까지 7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퐁피두, 데스탱, 시라크 대통령 3명과 총리 2명을 만났으며, 독일(서독 포함)은 5회 방문하여 뤼브케, 발터 셸, 칼 바이체커 대통령 3명과 총리 2명, 영국은 3회 방문하여 대처 총리 등 총리 4명과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여왕과 만났고, 스페인은 3회 방문하여 프랑코 총통과는 세 번 만나 돈독한 관계를 갖기도 했으며, 후안 카를로스 황태자(후에 총통)를 만났다. 모나코 왕국에서 레니에 3세 국왕과 그레이스 켈리 왕비를 만나고, 폴란드 크바스니예프스키 대통령과 총리, 포르투갈 조르즈 삼파이우 대통령과 총리, 이탈리아 지오바니 레오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네덜란드 판 아흐트 총리, 노르웨이 오바르 노를리 총리, 벨기에 레부르통 총리를 만났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세계 각국의 국왕, 대통령 등 정상 14명과 총리 15명을 만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치인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외교 업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국과의 국제적 정치, 외교관계 개척에서부터 우호협력과 차관 유치, 과학, 국방, 산업, 통상, 투자 유치 및 현지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 많은 공적을 세웠다. 특히 해외 자본 유치와 외화 수익 증대를 위한 광부와 간호사 파독 등 독일과의 경제협력 개척은 1960년대 혁명 초기 조국근대화의 초석과 기반을 세운 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높이 받고 있다.
다음은 1963년부터 1999년까지 운정이 만난 유럽 각국의 정상과 총리 급 이상 정치인을 소개한다.

 # 프랑스 (7회 방문)
■ 조르주 장 퐁피두(Georges Jean R. Pompidou, 1911–1974) 22대 대통령(1969–1974)
■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ery Giscard d'Estaing, 1926–)제23대 대통령(1974–1981)
■ 자크 르네 시라크(Jacques Rene Chirac, 1932–)제25대 대통령(2002–2007)
□ 피에르 메스메르(Pierre Messemer, 1916–2014) 총리
□ 리오넬 조스팽 (Lionel Jospin, 1937–) 총리
 # 독일 (5회 방문)
■ 칼 하인리히 뤼브케(Kahl Heinrich Lubke, 1894~1972) 제2대 대통령(1959–1969)
■ 발터 셸(Walter Scheel, 1919–2016) 제4대 대통령(1976~1979)
■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 1920–2015) 제6대 대통령(1984~94)
□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 총리(1969–1974), 1971년 노벨 평화상 수상
□ 헬무트 미하엘 콜(Helmut J. Michael Kohl, 1930–2017) 총리 (1982–90년은 서독, 1990–98년은 통일 독일 총리)
 # 영국 (3회 방문)
■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Elizabeth Alexandra Mary 1926–) 여왕(1952–)
□ 앨릭 더글러스 홈 남작(Alec Douglas-Home, Baron, 1903–1995) 총리(1963–1964)
□ 에드워드 히스(Edward Heath, 1916–2005) 총리(1970–1974)
□ 마거릿 힐다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2013) 총리(1979–1990)
□ 앤서니 찰스 린턴 블레어(Anthony Charles Lynton Blair, 1953–) 총리(1997–2007)
 # 스페인 (3회 방문)
■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1892–1975) 총통(1973–1975)
■ 후안 카를로스 1세(Juan Carlos I, 1938–2014) 황태자, 총통(1975–2014)
 # 이탈리아 (3회 방문)
■ 지오바니 레오네(Giovanni Leone, 1908 – 2001) 제6대 대통령(1971–1978)
□ 줄리오 안드레오티(Giulio Andreotti, 1919–2013) 총리('72–'73, '76–'79, '89–'92)
#폴란드
■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Aleksander Kwasniewski, 1954–) 대통령(1995–2005)
□ 예지 부젝(Jerzy Karol Buzek, 1940–) 총리(1997–2001), 유럽의회 의장

#포르투갈

■ 조르즈 삼파이우(Jorge de Sampaio, 1939-) 제18대 대통령(1996년-2006)

□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1949-) 총리(1995-2002) 현재 제9대 유엔 사무총장

 # 네덜란드

■ 율리아나(Juliana Louise Emma Marie Wilhelmina, 1909-2004) 여왕(1948-1980)

□ 판 아흐트(Van Agt, 1931-) 총리(1977-1982)

 # 모나코

■ 레니에 3세(Ranieri III di Monaco, 1923-2005) 대공(Prince)

■ 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Grace Patricia Kelly, 1929-1982) 대공비(Princess)

 # 노르웨이

□ 오바르 노를리(Odvar Nordli, 1976 - 1981) 총리(1976 - 1981)

 # 벨기에 (2회 방문)

□ 에드몬드 레부르통(Edmond Leburton, 1915-1997) 총리(1973-1974)

■ 유럽 주요국 방문 외교 일정

1963.2.25-10.23

자의반타의반 1차 외유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방문

#유럽 전 지역을 자동차로 여행(총 38,000km 주행)

#서독 방문시 아우토반, 함보른 탄광 막장까지 탐방, 광부와 간호사 파견 교섭, 고속도로 구상

1968.10.21-12.17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방문

#프랑코 스페인 총통 예방, 스페인 국립아카데미 명예회원증 수수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석

1973.5.19-6.16

국무총리로서 유럽 6개국 공식 방문(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서독, 프랑스, 모나코, 스위스(비공식)

#모나코 왕국 모나코 레니에 3세 대공과 그레이스 켈리 왕비 예방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I) 황태자 부부 예방, 프랑코 총통과 회담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 이탈리아 지오바니 레오네 대통령과 회담

#스페인 프랑코 총통과 회담

#독일 브란트 수상, 벨기에 레부르통 수상과 회담

#유럽경제공동체(EEC) 의장(벨기에)과 회담

1974.4.3-10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 장례식 참석, 유럽지역 한국 공관장 회의 개최

1975.4.29-5.9

프랑스 방문 후,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 장례식 참석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회담

1977.2.10-4.11

대통령특사로 아프리카, 중남미 순방 시 프랑스 방문(2.18-22)

1979.6.3-7월

대통령특사로 유럽6개국 순방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영국)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 면담(박정희대통령 친서 전달)

1992.9.28-10.5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스페인 IPU(국제민주동맹) 당수회의 참석

1998.7.10-17

국무총리로서 프랑스, 폴란드 공식 방문.

#시라크 대통령과 회담

#파리월드컵 결승전과 폐막식 참석, 떼제베(TGV) 시승, 프랑스 산업시설 시찰

#폴란드 크바스니에프스키 대통령, 예지 부제크 총리와 회담

#폴란드 대우자동차 방문

1999.6.14-25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 이, 취임식에 참석 후 포르투갈, 프랑스 방문

#독일 폰 바이체커 대통령, 헬무트 슈미트 수상과 회담

#포르투갈 삼파이오 대통령, 구테흐스 총리(현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과 회담, 엘리제궁에서 공로훈장대십자장 수수

1973년 유럽 순방 후 귀국하는 김종필총리 내외를 공항에서 맞이하는 정계 인사들

1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999.4.19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공(Philip Mountbatten, 1921–) 방한 경축 리셉션에서 운정과 박영옥 여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는 4.21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73세 생일상을 받았다. 생일상은 국수 · 과일 · 편육 · 꽃떡 등 47가지 한국 전통음식으로 차려졌으며 하회별신굿 탈놀이 아홉 마당도 관람했다.

1972.2.16. 앨릭 더글러스 흄 외상(전 총리)의 예방을 받아 인사를 나누고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

1974년 영국 통상사절단을 맞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 정주영 회장)

1973년 영국 국방대학원 장군들의 예방을 받아 악수를 나누고 있다.

1974년 영국 성공회 주교에게 서훈 수여 후 기념 촬영을 가졌다

1972년 영국 전략연구소 소장과 만나 안보 상황과 대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979.6.25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2013) 총리를 예방하여 박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간의 우호 협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1979.6.25 대처 총리를 예방하기 직전 캐링턴 외상과 회담을 가졌다.

1979.6.24 히드로 공항에서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왼쪽은 최경록 주영대사)

1998.6.19.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도덕재무장운동(MRA) 영국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1998.6.25.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영국 리처드 사이키 글락소웰컴그룹 회장을 접견하였다.

1999.2.8 김종필 국무총리가 요르단 국왕 장례식 참석하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환담을 나누었다. (가운데 이양희 의원)

■ 마가렛 대처 수상에게 보낸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

대통령특사 김종필 의원(당시 공화당 총재 상임고문)이 1979년 6월 25일 영국 대처 수상 면담 시 휴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대처 수상에게 전하는 친서(1979년 5월 28일자)가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총리관련문서 19책 123권'[PREN 19 VOLUME 123]에 포함되어 있다.

이 친서(한글본, 영자본 각 2쪽)에는 수신자로 '대영왕국 마가렛 힐더 대처 수상각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문양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글이 금박표시된 용지에 작성됐고, 발신자 박대통령이 친필 서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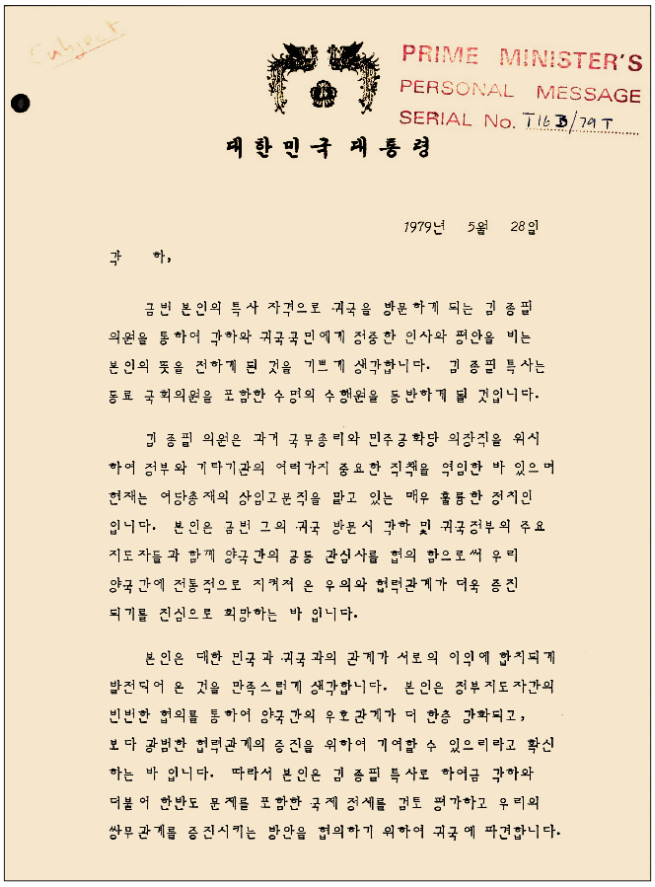
박대통령은 '대통령특사인 김종필의원은 국무총리와 공화당의장등 중요직책을 역임했고 현재 여당총재의 상임고문이라고 적고 각하, 즉 대처수상과 함께 양국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김종필의원이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며 동료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수명의 수행원을 동반한다고 적었다.

친서말미에는 김종필특사가 각하, 즉 대처수상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검토, 평가할 수 있도록 김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김특사와 대처수상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는 대처수상이 직접 김종필 의원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정부는 김종필 특사의 방문과 관련, 대처수상에게 김 특사의 프로필등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친서는 한표욱 영국대사를 통해 영국 외무장관을 경유, 대처수상에게 전달되었다

친서를 받은 대처수상은 면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김종필 특사는 1979년 6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영국 수상관저를 방문, 대처수상을 면담하였다.

〈출처: http://andocu.tistory.com/7317 SECRET OF KOREA〉



PRIME MINISTER'S
PERSONAL MESSAGE
SERIAL No. T163/79T

대 한 민 국 대 통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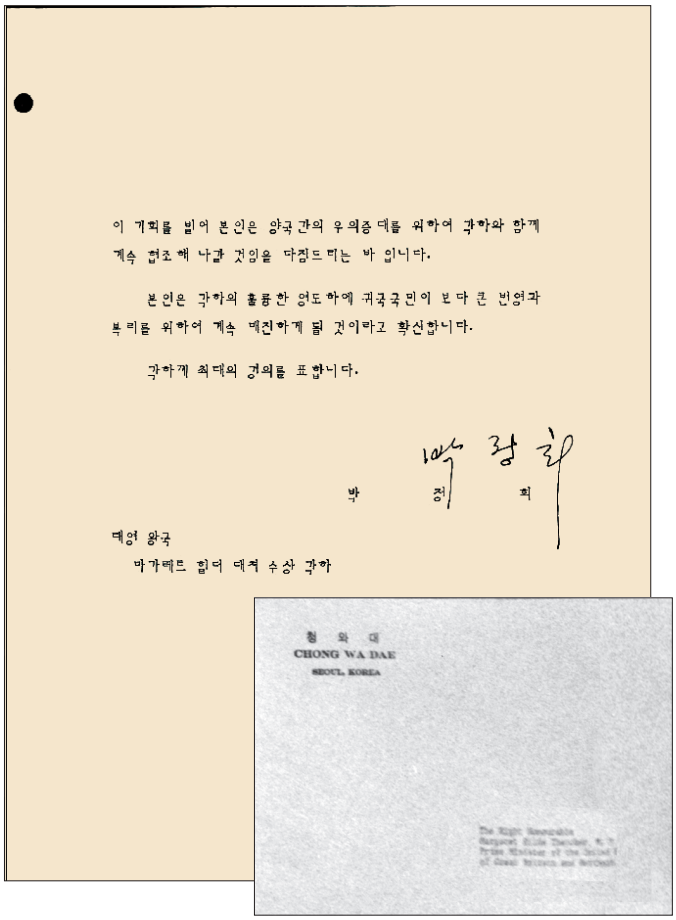
1979년 5월 28일

각 하,

금번 본인의 특사 자격으로 귀국을 방문하게 되는 김 종필 의원을 통하여 각하와 귀국국민에게 정중한 인사와 평안을 비는 본인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종필 특사는 동료 국회의원을 포함한 수명의 수행원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김 종필 의원은 과거 국무총리와 민주공화당 의장직을 위시하여 정부와 기타기관의 여러가지 중요한 직책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여당총재의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는 매우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본인은 금번 그의 귀국 방문시 각하 및 귀국정부의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양국간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 함으로써 우리 양국간에 전통적으로 지켜져 온 우의와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 입니다.

본인은 대한 민국과 귀국과의 관계가 서로의 이익에 합치되게 발전되어 온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정부지도자간의 빈번한 협의를 통하여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고, 보다 광범한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김 종필 특사로 하여금 각하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를 검토 평가하고 우리의 쌍무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국에 파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인은 양국간의 우의증대를 위하여 각하와 함께 계속 협조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는 바 입니다.

본인은 각하의 훌륭한 영도하에 귀국국민이 보다 큰 번영과 복리를 위하여 계속 대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박 정 희

대영 왕국
마가레트 힐더 대처 수상 각하

청 와 대
CHONG WA DAE
SEOUL, KOREA

■ 세종문화회관 파이프오르간에 숨은 비화

- 에드워드 히스 전 영국 총리의 즉석 연주 -

북한과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1960~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가장 뒤진 부분이 남측의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했고, 북한의 만수대 예술극장 같은 대공연장에 맞서는 시설을 세우고 싶어 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게 4층 규모의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 자리)이었다. 1972년 12월 2일 큰 화재로 소실된 시민회관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이 신축된 것이다. 개관일은 4월14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보다 하루 앞서 날을 잡았다.
특기할 것은 원래 설계도에도 없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기로 한 인물이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였다. 운정은 '김종필증언록'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에 파이프 오르간을 장치한 건 자신의 오래된 자부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설치 비용만 6억1,300만원으로 당시 피아노 1,700여대 값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가난한 사람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돈을 쓸데없는 데 낭비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6단 건반에 8,098본의 파이프뿐만 아니라 32개의 한국식 범종, 프랑스식 종 40개를 첨가하며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기도 했다. 오르가니스트 윤양희 씨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김종필 총리가 일본 NHK 콘서트홀의 건반 5단짜리 파이프 오르간(직전 동양 최대)을 보고, 그것보다 하나라도 더 많게 지으라고 해서 6단짜리 파이프오르간을 설계했다"고 한다. 당시로선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다고 한다. 독일 칼 슈케에게 주문해 제작한 이 파이프 오르간은 무게만 45t에 이르며 아시아에서 가장 컸었다.
세종문화회관 파이프오르간의 진가는 곧 드러났다. 78년 5월 영국의 에드워드 히스(1916~2005) 전 총리가 방한했을 때 운정은 그를 세종문화회관으로 데리고 갔다. 히스 총리가 음악을 좋아해 지휘도 할 뿐 아니라 파이프오르간을 잘 친다는 얘기를 일찍이 들은 바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동양 최대의 파이프오르간이란 말에 반색하며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는 멘델스존의 '소나타 2번 작품 65' 등을 45분 동안이나 연주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의 음향시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공식적인 외교 활동에 못지 않은 예술을 통한 외교 행적인 셈이다. 雲庭

1978.5월 세종홀 파이프오르간을 둘러보고(왼쪽),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주하는 히스 전 총리. [사진제공 : 세종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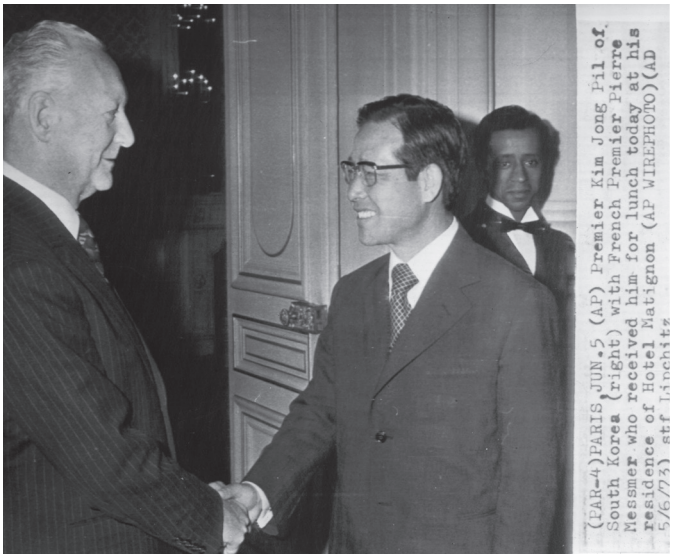
2 프랑스 French Republic

퐁피두는 제2차 세계 대전중에 대독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샤를 드골 정부하에서는 총리를 역임하였고,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드골의 후계자로서 등장하였으나, 드골의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보다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띠었으며, 외교적으로는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을 이끌었으며, 산업화 계획과 유럽공동의 로켓발사계획을 주도하였다. 희귀질환인 매크로글로브린혈증으로 쓰러져 사망하고, 후임으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당선되었다.

1973.5월 엘리제궁에서 조르주 장 퐁피두 대통령을 예방, 회담하고 있다.

1973.6.5 프랑스를 떠나면서 퐁피두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73.5월 엘리제궁에서 퐁피두 대통령과 회담 후 근위병의 경례를 받으며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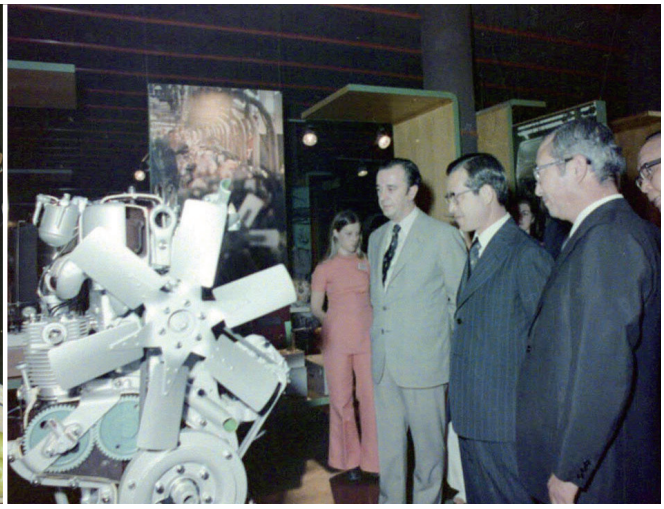


1973.6.5 외무성 영빈관에서 피에르 메스메르(Pierre Messemer, 1916-2014) 총리를 만나고 있다.(AP통신의 보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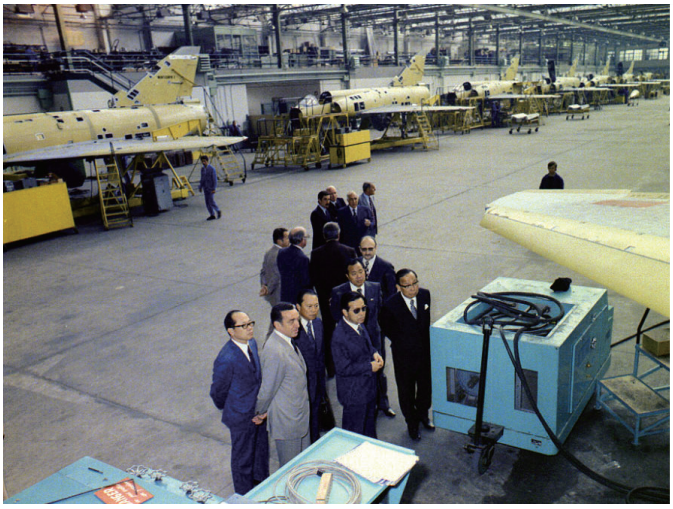
1973.6.6 지스카르 데스탱 재무장관(1974년 대통령 당선)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1974. 4월 파리 노트르담 사원에서 거행된 고 조지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였다.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1973년 5월 농산물(사과)가공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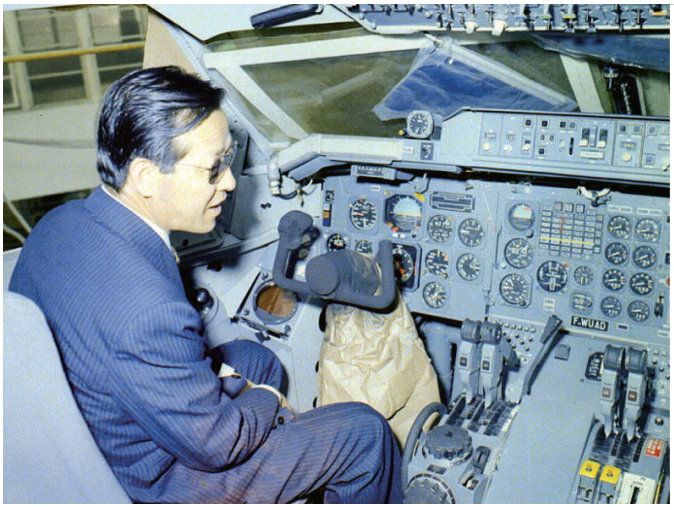


1973년 5월 시뜨로엥 자동차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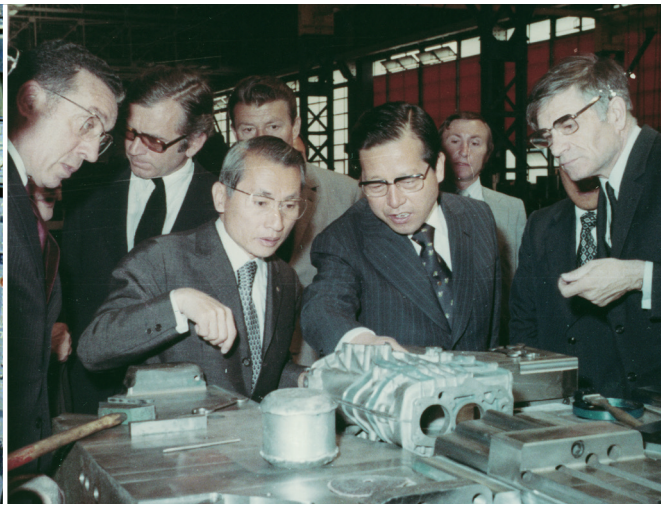


1973년 5월 미라쥬 전투기 제조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1973년 5월 에어버스 제조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1973. 5월 리옹 항공기 공장을 시찰 중 에어버스 조정석을 살펴보고 있다.



1973.6.7 다소항공사에서 콩코드 여객기 제작과정을 시찰하고 있다.

데스탱은 퐁피두 내각에서 재무장관으로 있던 중, 1974년 퐁피두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여 그 후임 선거에서 미테랑과 격돌하여 1차 투표에서는 패하였으나, 2차 투표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임 중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강화하여 뒤에 유럽 연합(EU)으로 발전하게 하는 초석을 닦았으며, 서방7개국정상회담(G7) 창설에도 주도적 구실을 맡았다.

1975.4.30 엘리제궁에서 발레리 마리 르네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1975년 한불의원친선협회 프랑스의원 일행 환영 리셉션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99.1.19. 프랑스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기념으로 받은 프랑스 검을 만져보고 있다.

10.1998.7.12 프랑스월드컵 결승전에서 리오넬 조스팽 (Lionel Jospin, 1937년 7월 24일~) 총리를 만나 객석으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정몽준 축구협회장.

1998.7.12 파리교외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과 폐막식에서 시라크 대통령을 만나 함께 관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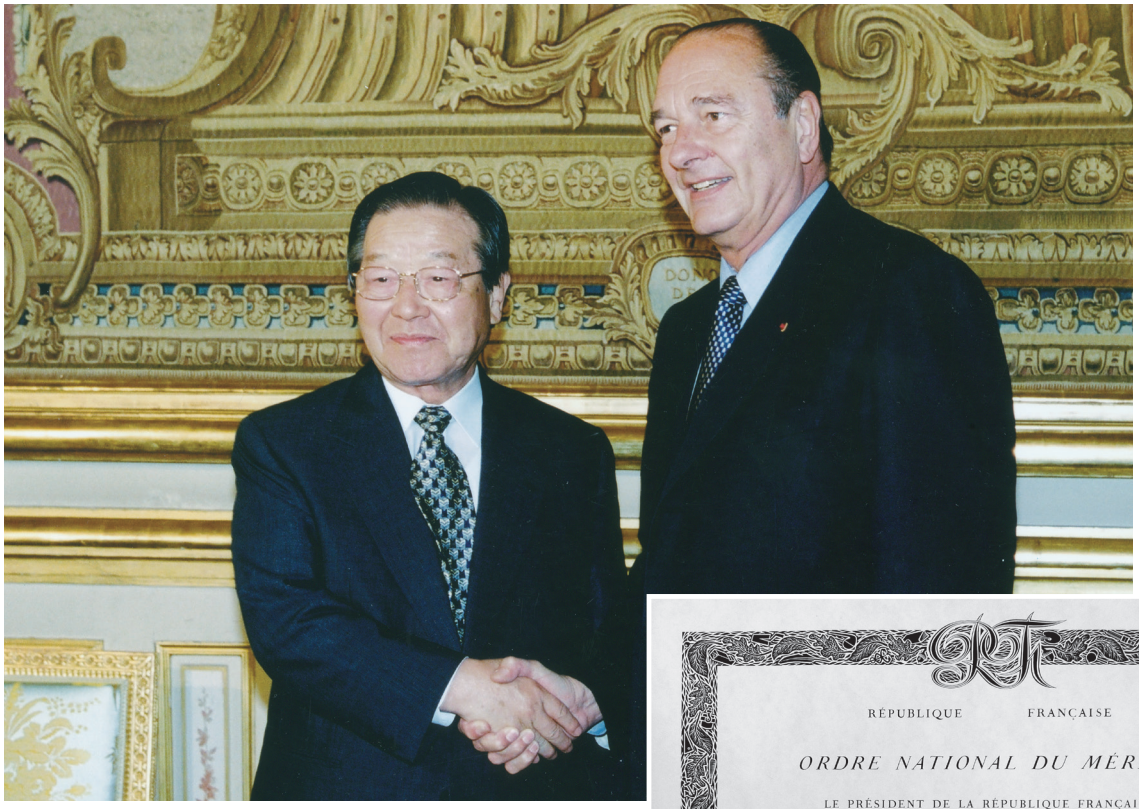
1998.7.11 TGV 시운전 기념행사에 참석, 프랑스 알스톰사가 시험운행중인 파리 노드역-피카르디역간 1백10㎞구간의 TGV에 탑승하여 안전성과 성능 등을 점검하였다.

1998.7.12. 재프랑스 동포 대표 초청으로 Meurice호텔에서 열린 환영 조찬에서 재불 사학자 박병선 박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박사(1924-2011)는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은 최초의 여성으로 소르본대학교에서 역사학, 프랑스고등교육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프랑스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에 수많은 도서관 소장품 중 발견한 책이 바로 〈직지심체요절 直指心體要節〉이다. 이후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자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당시 세계의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국제적 공인을 받게 만들었다.

1998.7.13.아비뇽 Boulbon 절벽극장에서 열린 아비뇽 축제에 참석하여 안숙선, 이매방,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이 출연한 '한국의 밤'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김종필 총리(중앙)와 오른쪽으로 한 사람 건너 박세직 2002 월드컵조직위원장, 왼쪽에 신현웅 문화부 차관.

1998.7.14. 파리 시내를 관광하던 중 한국 대학생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98.7.13. 아비뇽 축제 한국의 밤에 출연한 안숙선, 이매방,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고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직위원장)



1999.6.23 엘리제궁에서 자크 르네 시라크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시라크는 전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과 함께 프랑스 현대 우파정치의 쌍두마차를 이끌어온 시라크는 강한 프랑스 재건을 꿈꾸었던 드골주의자이다. 그는 12년간의 재임기간 중 대통령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헌법 개정을 했고, 2002년에 5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다시 당선되어, 미테랑에 이어 직접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RÉPUBLIQUE FRANÇAISE

ORDRE NATIONAL DU MÉRIT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GRAND MAÎTRE DE L'ORDRE NATIONAL DU MÉRITE

nomme par décret de ce jour, Monsieur Jong-Pil K I M

Premier Ministr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GRAND' CROIX DE L'ORDRE NATIONAL DU MERITE

Fait à Paris, le 17 Juin 1999

Scellé du sceau de l'ordre sous le n° 277 E 99
Le Secrétaire Général,

Olivier FOURNI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Le Chancelier de l'Ordre National du Mérite,

Général DO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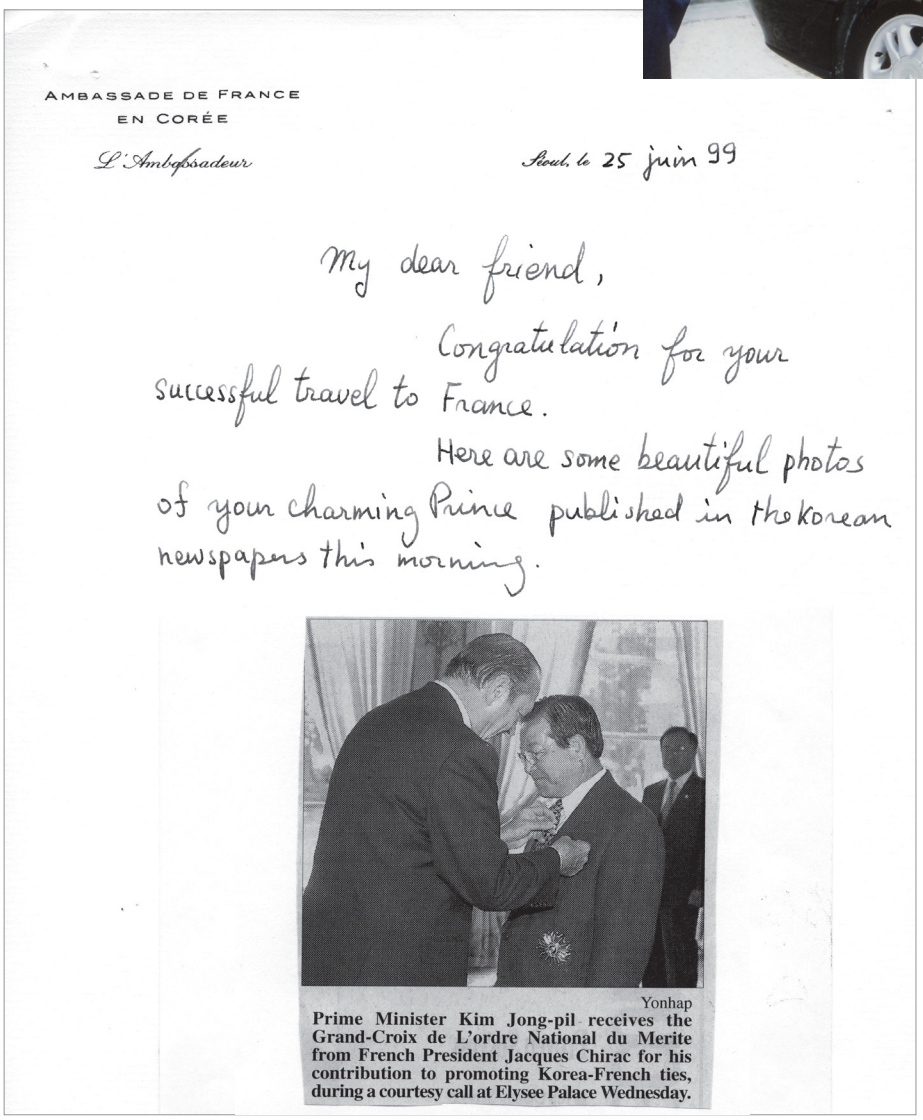
프랑스 국가최고공로훈장

1999.6.23 프랑스 우호관계 증진 기여로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최고공로 훈장을 받고 있다.

1999.6.23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참석자들과 축배를 들고 있다.다.

1999.6.23. 수행원들과 함께 파리에 있는 오랑제리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다.

1999.6.23. 시라크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엘리제 궁을 떠나고 있다.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Ambassadeur

Seoul, le 25 juin 99

My dear friend,

Congratulation for your successful travel to France.

Here are some beautiful photos of your charming Prince published in the korean newspapers this morning.

Yonhap

Prime Minister Kim Jong-pil receives the Grand-Croix de L'ordre National du Merite from French President Jacques Chirac for his contribution to promoting Korea-French ties, during a courtesy call at Elysee Palace Wednesday.

1999.6.25.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는 기사를 보도한 현지 신문을 스크랩하여 보내왔다.

3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뤼브케는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직전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 중 군사시설 공사의 책임자로 일하였다.(V2 로켓 연구센터의 무기 실험장 건설에 참여했고, 강제 수용소 건설의 현장 감독을 맡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짐)
아데나워의 뒤를 이어 1959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63년 한국이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 했을 때 한국에 1억4천만마르크를 빌려 주기도 하였다.

1967.3.3 뤼브케 대통령 환영 만찬식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정희 대통령.

1967.3.2 국빈으로 내한한 칼 하인리히 뤼브케 대통령 부부를 김포공항에서 영접하고 있다.

1967.3.2 뤼브케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카 퍼레이드 장면(시청 앞)

■ 뤼브케 서독 대통령 부부 방한訪韓 당시 이모저모

1967년 3월2일, 칼 하인리히 뤼브케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과 영부인 빌헤르민 뤼브케 여사가 특별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3월6일까지 5일간 체류할 뤼브케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1964년 박 대통령 부부의 방독訪獨에 대한 답방答訪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뤼브케 대통령 부부는 박대통령의 전용차에 나눠 타고 김포가도와 제2한강교를 지났다. 연도에는 약 60만 명의 서울 시민과 학생들 및 1000명의 사관생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환영 식장에서 뤼브케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하는 네 명의 어린이들에게 즉석에서 호주머니에서 5마르크 은화 한 닢씩을 꺼내 쥐어 주었다. 육 여사는 이 모습을 훗날까지 기억하며 자신이 붙인 「신사 할아버지」란 별칭을 뤼브케 대통령에게 사용하곤 했다. 뤼브케 대통령은 서독을 떠나기 전 한국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조자금을 기한 내에 이자와 함께 척척 돌려주는 한국이야말로 외국 원조의 필요성을 증명해 주었"며 기뻐했었다.

양국 원수는 환영 만찬에서 선물을 교환했는데 의미있는 선물들이 많았다. 뤼브케 대통령은 먼저 서독 정부가 한국 정부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X선 촬영기 한 대를 전달했다. 이어 박대통령에게 독일제 전축과 녹음기 한 대씩을 선사했고 장녀 근혜양에게는 소형 전축 한 대, 차녀 근영양에게는 타자기 한 대 , 지만군에게는 장난감을 선물했다. 박대통령은 뤼브케 대통령에게 「구한말舊韓末에 있어서 의 한독韓獨관계 외교문서」와 자개 문갑, 가야금, 거문고와 전국 사찰의 범종梵鍾 소리를 녹음한 레코드 한 장을 전달했다. 雲庭

1973.6.1 국무총리로서 서독을 공식방문, 빌리 브란트 총리와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

셀 대통령은 동방정책의 기틀을 잡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외무장관 재임 시기 빌리 브란트 총리와 함께 동독을 독일 내 제2의 국가로 인정했다. 동독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와 외교관계를 갖지 않기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며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를 적극 추진했다. 그는 브란트 총리가 서베를린 시장 당시 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을 받자 "유럽의 안정을 위해 누군가는 공산주의자를 만나야 한다"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1979.6.20 대통령 특사로 유럽 6개국 방문시 발터 쉘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1963. 2월 자의반타의반 1차 외유시 벤츠자동차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1973.5.20 유럽 6개국 첫 방문국 서독 함부르크항을 시찰하며 수행기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에 조남조 중앙일보 기자, 김용술 경향신문 기자)

1979.6.20 헬무트 슈미트 콜 총리와 회담을 갖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 김진봉 의원)

1973.5.19 함부르크공항에서 서독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1973.5.20. 함부르크 항만 감독선에 승선, 브리핑을 받고있다.

1998.7.16. 독일 하이델베르크성을 방문하여 성 내부에 대해 설명을 받고 있다.

1998.7.16 독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축배를 들고 있다.

1998.7.16 하이델베르크 선술집에서 주인, 수행원과 함께 생맥주로 건배를 나누고 있다.

1999.3.31. 뮌헨대학교 노벨상 수상자들을 접견하고 있다. 이 대학은 지금까지 3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바이츠제커는 대중적 강연과 필적에서 민주적 원리, 관용, 사회적 책임의 강력하고 또렷한 주창자로 지내왔다. 1989년 5월 23일에 재선되었고, 그의 2번째 재임 기간은 냉전의 종식과 독일의 재통일을 바라보았다. 통일 독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정치적, 국가적, 세대적인 한계에 도달하는 데 여러 논쟁점들을 강연하여 전통적으로 독일 대통령의 의식적 자세를 넓혔다. 그는 지구촌 기아 구조에 목표를 둔 식량 원조에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1999.6.16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이, 취임식이 열린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유니온 빌딩내 오찬장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부처가 칼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99.10.16 콜 전 총리를 20년만에 만나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1998.8.13. 세계 철강기업 3위인 독일 티센 크루프(Thyssen Krupp AG) 그룹 사장을 접견하였다

4 이탈리아 Italian Republic

레오네는 우파 성향을 띤 인물로 1948년 대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63년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1967년 종신 상원의원이 되었다. 1971년 대통령에 당선, 7년간 재직하였으나 록히드 사건에 개입한 의혹으로 결국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두고 사퇴했다.

1973.5.19 지오바니 레오네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조바니 레오네(Giovanni Leone, 1908-2001)는 이탈리아의 정치인이다. 1963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냈으며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제6대 대통령을 지냈다.

1973.5.25 줄리오 안드레오티(Giulio Andreotti, 1919-2013) 수상과 면담하였다.

1966.9.24. 이탈리아 정부의 최고훈장을 수여받고 있다.

1973.5.24–27 로마 시내 밤거리에서 서점, 화랑을 둘러보고, 노점에서 특산물을 사고 있다.

1973.5.19. 레오나르도다빈치 공항에 도착, 영접을 받고 있다.

1973.5.19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김영선 대사와 바둑을 두며 잠시 여독을 풀고 있다.

5 모나코 Principality of Monaco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켈리 대공비는 이날 박영옥 여사의 한복이 아주 멋있다고 극찬을 했고, 박 여사가 선물한 연수정 반지를 껴보자 딱 맞는다며 아주 좋아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한국을 생각하겠다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도 비쳤다. 김종필 총리 내외와 레니에 3세 국왕 부부는 1971년 이란 건국 2,5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난 적이 있어 두 번째 만남으로 더욱 반갑게 환담을 나누었으며, 켈리 왕비와 박 여사는 나이가 같아 한층 친밀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다.

1973.6.10 박영옥 여사와 함께 모나코 왕국을 방문해 몬테카를로 왕궁에서 레니에 3세 국왕과 그레이스 켈리왕비를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73.6.10 담화를 끝내고 기념촬영.

1973.6.10 왕궁 밖에서 배웅을 받고있다.

6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크바시니에프스키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1990년 공산당이 붕괴되자 민주좌파연합을 결성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민주좌파연합 지도자직을 맡았다. 1995년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레흐 바웬사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공산당 출신임에 불구하고 바웬사처럼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폴란드를 유럽 연합 및 나토에 가입시켰다.

1998.7.15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알렉산데르 크바스니예프스키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1998.7.15. 바르샤바에서 예지 부젝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1998.7.15. 폴란드내 대우그룹의 현지투자공장인 대우-FSO 자동차공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998.7.14. 주폴란드대사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였다. 왼쪽 두 번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세 번째 김종필 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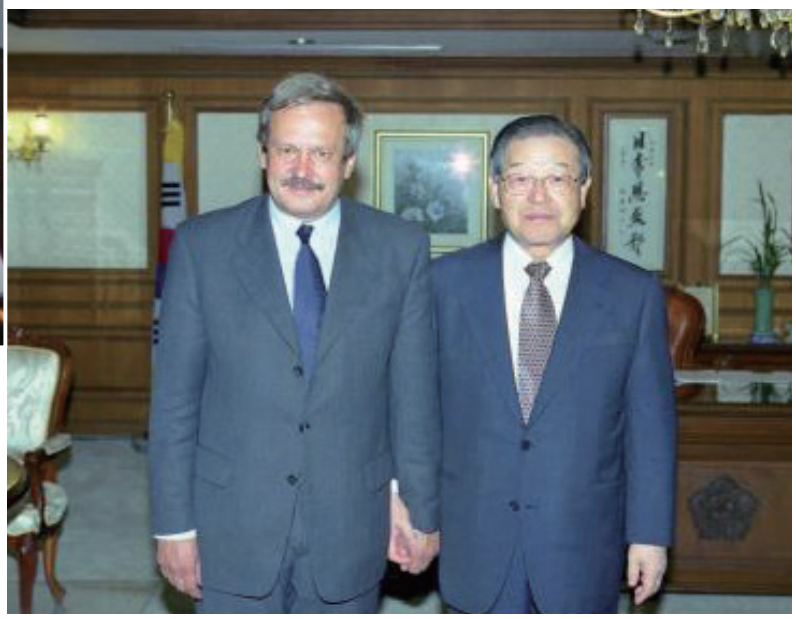
1998.7.16. 구시가지 및 왕궁 등 바르샤바시내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다. 폴란드 영빈관을 방문한 후 출발하였다.

1998.7.16. 구시가지 및 왕궁 등 바르샤바시내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다.

폴란드 영빈관

영빈관 방명록에 남긴 친필 "영원한 우방으로 무궁한 번영을"

1999.4.27 스테인호프 경제부 장관을 접견하였다



1999.6.28. 예지 부젝 총리와 함께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열린 양국 관세협력협정 서명식에 임석하였다.

1999.6.28 관세협력협정 후 부젝 총리와 축배를 나누고 있다.

1999.6.28 만찬장에서 한국 공연단과 함께 흥을 돋우다가 땀을 흘린 땀을 닦아주는 박영옥여사. 부젝 총리가 뒤에서 크게 웃고 있다.

7 포르투갈 Portuguese Republic

삼파이우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리스본 시장으로 재임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삼파이우의 집안은 몇 년 간 미국과 영국에서 오가며 생활하기도 했다. 외할머니는 모로코에서 거주하던 셰파르딤계 유태인이라고 하며, 외할아버지는 포르투갈의 해군 장교였으며 외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불가지론을 믿는 사람이다.

1999.6.21 리스본 대통령궁에서 조르즈 삼파이우(Jorge de Sampaio, 1939–) 포르투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1999.6.21 안토니오 구흐테스 총리와 리스본 총리청사 내 야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1949–)총리는 1995년–2002년 포르투갈의 총리를 지냈고, 2016년 10월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어 현재 제9대 유엔 사무총장이다.

1999.6.21. 수행단 일행과 함께 제로니무스 수도원 (Jeronimos Monastery) 및 벨렝탑을 탐방하였다.

*제로니무스 수도원(Mosteiro dos Jeronimos)은 포르투갈 리스본 벨렝에 있는 수도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벨렝탑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수도원은 16세기에 세워졌으며 당시 뱃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포르투갈 왕실의 묘비로 사용하려고 지었으나 훗날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서 귀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는데, 역사적인 출정 전야에 이곳을 찾아 기도하였다.

*벨렝탑(Torre de Belem)은 인근에 위치한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6세기 마누엘 1세에 의해 바스코 다 가마의 세계일주의 위업을 기념해 만든 타구스 강 선박의 출입을 감시하는 목적의 탑이다. 건축 양식은 마누엘 양식이다.

*신트라(Sintra)는 포르투갈 리스보아 지방 리스보아 현에 위치한 도시이다. 무어인이 쌓은 성곽, 포르투갈 왕실의 여름 궁전 등 다양한 연대의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 최서단에 위치한 호카 곶 관광의 거점이기도 하다.

1999.6.22. 문화유적지 신트라궁을 탐방하였다.

1999.6.22 신트라 지역에 위치한 한국기업인 삼성전기를 시찰하였다.

1999.6.22 신트라에 인접한 문화유적지 뻬나(pena)성을 탐방하였다.

1999.8.10. 김종필 국무총리 부부가 1999.6월 순방국이었던 포르투갈 대사부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부부, 프랑스 대사부부들을 초청해 만찬 모임을 가졌다.

1996. 6월 리스본 Ritz 호텔에서 열린 포르투갈 교민 및 주재상사 대표를 위한 만찬에 참석하여 건배와 함께 위로하였다.

8 스페인 Kingdom of Spain

프랑코는 스페인 육군 대원수로 스페인의 총통(국가원수 겸 수상)을 지냈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이력이 있고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는 스페인의 군사독재자였으며, 왕정을 타도하였으나 그 자신은 군사독재, 전제 정치를 수행했다. 1936년 모로코인 용병을 포함한 자신의 직속 군대를 이끌고 공산주의 정부인 인민전선 정부에 반대해 스페인 내전을 일으켰고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도움으로 1939년 수도 마드리드를 함락시켰다. 자신을 "무신론 공산주의에 맞선 로마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수호자"로 생각하였다. 내전에서 승리한 뒤 프랑코는 "나는 오직 하느님과 역사 앞에서만 책임을 질뿐이다"라는 말과 함께 제3공화국을 수립하여 38년간 막강한 독재 체재를 구축하였다. 그는 수장, 지도자라는 의미의 엘 카우디요(El Caudillo)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1968.10.23 스페인 프랑코 총독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73.5.30 1968년에 이어, 두 번째 프랑코 총통을 국무총리로서 예방하였다.

1973.5.28. 루이스 카레로 블랑코(Luis Carrero Blanco, 1904-1973)총리와 만났다. 블랑코총리는 오랫동안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친구였으며, 1973년 프랑코의 후계자로 총통에 취임했다.

1973.6.1 카를로스 황태자 초청 오찬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73. 5.31. 스페인 외무장관 부인과 박물관 관람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73.6.1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1975년 총통 승계)황태자 부부와 오찬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73. 5.31 스페인 외무장관 부인의 안내로 스페인 국립박물관을 감상하는 박영옥 여사.

1973년 신임 스페인대사 및 산업공사 부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1973. 5.31.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스페인 주요인사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박영옥여사

1992.9.30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세계 정당 당수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9 벨기에 Kingdom of Belgium

1973.5.22 대통령 특사로 유럽6개국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레부르통 수상과 회담하고 있다.

1973.5.22 수상 관저에서 벨기에 수상과 회담에 앞서 외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벨기에 레부르통 수상이 김종필 총리와 회담한 사진과 기사를 스크랩하여 보내왔다.
(현지 그리스(Gries)신문이 1973.5.22. AP통신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

1973.5.24 벨기에 각료들과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회담을 갖고 있다.

1973.5.23 벨기에 수상 관저 현관에서 박영옥 여사와 함께 영접을 받고 있다.

1973.5.24 벨기에 언론사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있다.

1973.5.20 벨기에 브루셀공항에서 환영 나온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79.6.6 벨기에 수상 초청 오찬 모임에 앞서 양측 부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1979.06.06 브뤼셀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비를 방문, 헌화와 함께 추모하고 있다.

1998.9.14. 벨기에 Interbrew사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우리나라가 벨기에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대한제국 당시 한 · 백 수호통상조약으로, 이 조약은 1901년 3월 23일 대한제국의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과 벨기에왕국 특명전권대신 방카르트(Vincart, L.)에 의하여 조인되었다.
광복 후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첫 번째로 우리 정부를 승인한 국가이며, 6 · 25 전쟁 참전 16개국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 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지지하여 온 전통적 우방국이다.
우리나라와의 사회적인 교류는 6 · 25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로 구성되어 1952년 4월 5일에 발족한 한국참전용사회, 각계 저명인사와 한국고아 입양부모들로 구성되어 1975년 5월 15일에 발족한 백 · 한친선협회를 비롯하여 의원친선협회 · 경제협력위원회 · 강남월루에쌍피에르자매결연위원회 등이 있어 양 국민간의 교류를 돕고 있다.

10 네덜란드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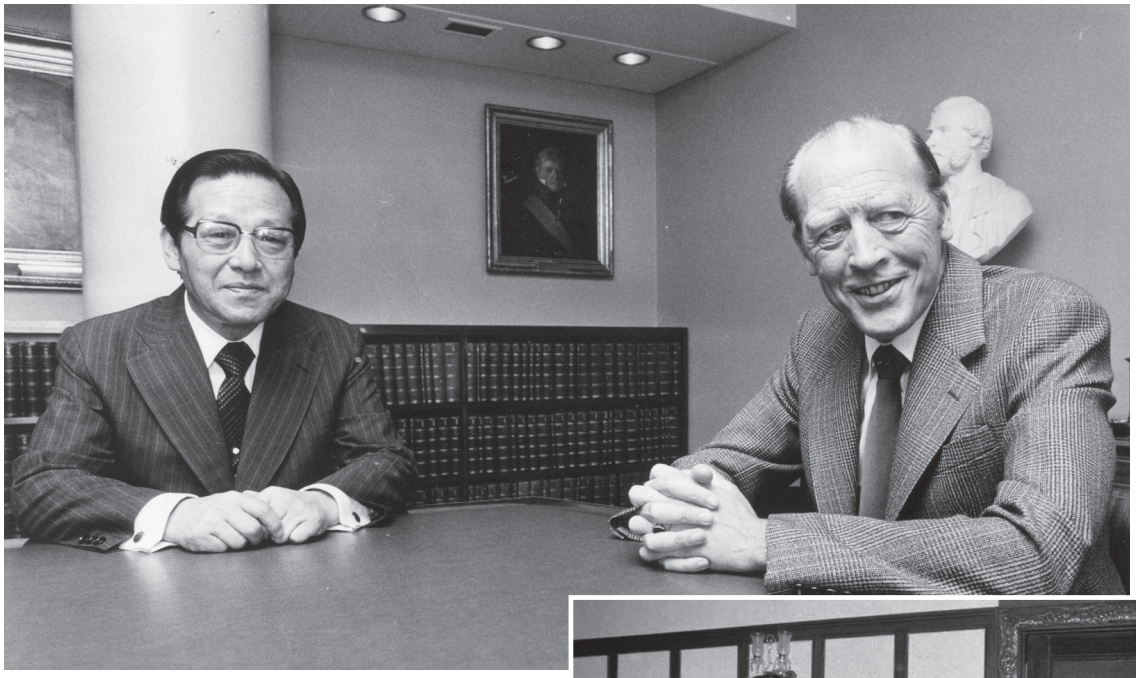
1979.6.15 대통령특사로 네덜란드를 방문, 판 아흐트 수상과 회담을 갖고 있다.

1974년 네덜란드 필립스그룹 프리츠 필립스(Fritz Philips)회장단을 접견하였다.

1999.7.26. 네덜란드 필립스그룹 얀 티머(Jan Timmer) 회장을 접견하였다.

1979.6.15 5대 국왕 율리아나 여왕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사진은 1980년 딸 베아트릭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에 언론에 메시지를 발표하는 장면) 율리아나 여왕은 1948년 즉위 이후 네덜란드의 경제성장과 안전보장이라는 두 개의 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군주였고 즉위 직후 인도네시아 독립문제를 타결했고, 네덜란드의 나토,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통해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결정하기도 했다.

11 노르웨이 Kingdom of Norway



1979.6.7. 대통령특사로 유럽 6개국 순방 중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오바르 노를리(Odvar Nordli, 1927–)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1974년 노르웨이 언론인과 인터뷰를 갖기 전 인사를 받고 있다.

1975년 노르웨이 해운상무장관 일행의 접견을 받아 담화를 나누고 있다.

1999.10.6. 카레 교네스 노르웨이 농업부 장관 일행을 접견하였다.

12 덴마크 Kingdom of Denmark

1975년 덴마크통상사절단과 접견하고 있다.

1973년 김종필 총리 부인 박영옥 여사가 덴마크 방문 후, 김포공항에서 주한 덴마크대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1974 덴마크, 프랑스 언론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1972년 주한 덴마크 대사로 부터 신임 인사를 받고 있다.

13 그리스 Hellenic Republic ; Greece

1999.5.17. 한 · 그리스 의원 친선협회 그리스 측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1971년 그리스 한국 겸임대사의 신임 인사를 받고 있다.그리스는 6 · 25전쟁 참전국으로, 1961년 4월 5일 한국과 단독 수교했으며, 1973년에 그리스 상주 공관, 1991년에 한국 상주공관이 설치되었다.

14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1999.6.29. 이임하는 주한 헝가리 대사에게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15 아일랜드 Republic of Ireland

1999.7.10. 이임하는 주한 아일랜드 대사에게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훈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고있다.

16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1998.5.15. 이임하는 슬로바키아 대사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있다.

17 리투아니아 Republic of Lithuania

1999.3.15. 리투아니아 사우다르가스 외무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간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

18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1999.4.26. 겐나디 셀레즈뇨프(Gennady N. Seleznyov)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과 총리 공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98.11.25. 주한 러시아대사를 접견, 1999년 러시아 하원의장 일행의 내한 요청에 대해 사전 조율 등 보고를 받았다.

1999.4.26. 러시아 하원의장 일행과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찬 회담을 가졌다. 셀레즈뇨프의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예방, 조찬을 함께하며 한-러시아 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이어 김종필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과 박의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잇따라 참석해,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와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1999.6.10 한 · 러시아 학술회의 참석자와 만찬을 함께 하였다.

1999.11.3 한 · 러 수교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초청된 러시아 국립 볼쇼이발레단의 내한공연을 관람한 후 무용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박영옥 여사.

1999.11.3.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볼쇼이발레단의 공연 장면.

1999.6.10. 한 · 러시아 학술회의에 참석한 여성 대표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1999.11.24.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 의장대행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 일어업협정으로 인해 국내 명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나라 명태 쿼터를 5만T 가량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19 스웨덴 Republic of Sweden

1999.4.19. 스웨덴 통상장관을 맞이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1999.4.19. 스웨덴 통상사절단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1971년 스웨덴 대사 신임 인사를 받고 있다.

1975년 이임하는 주한 스웨덴 대사에게 서훈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20 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 Switzerland

1972년 스위스 의회 의원들의 예방을 받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73.6월 유럽 6개국 순방시, 비공식으로 스위스를 방문, 주스위스대사관 직원들을 위로하고 있다.

1973. 6월 스위스 체류 한국인들과 골프를 치고 있다.

1975년 케뉴 주한 스위스 신임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1 유럽 기타

1973.5.27. 유럽 6개국 순방 중, 독일에서 유럽 주재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973.5.22. 벨기에 방문 중 EEC(유럽경제공동체, 현 EU 전신) 1973년도 공동의장(벨기에)과 회담을 가졌다.

1998.8.28. 퍼그워시회의 조지프 로트블랫 의장을 접견하였다.(왼쪽에서 세 번째) 퍼그워시회의는 핵전쟁의 위험에서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각국의 과학자가 군축, 평화문제를 토의하는 국제회의로써 퍼그워시회의와 의장이 공동으로 199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는 모든 핵무기및 모든 전쟁의 근절을 호소하는 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회의이다. 버트런드 러셀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으로 이에 영향을 받은 11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에 의해 1957년에 창설되었다.

스위스 케뉴대사 19751999.6.13. 국무총리공관에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장을 위한 조찬을 함께 하였다. 가운데 김운용 IOC위원.

1999.12.3. 김종필 국무총리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김종필 국무총리 초청 오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